# 전남 호텔·리조트 등 7000실 늘린다

## 도, 2025년까지 3조5900억 유치
## 숙박시설 1만 631실→1만7617실
## 머무는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도가 오는 2025년까지 3조59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호텔, 리조트 등 6986실을 확보하기로 했다.지난해 12월 기준 1만 631실이었던 명품 숙박시설을 1만7617실로 늘려 전남의 풍광과 음식을 즐기며 체류하는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챌린저파크 관광단지 등 6개소 1944만3000㎡를 지정해 개발하고 있으며,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등 5개소에 대해 신규 조성계획 등에 3조5900억원을 투자해 6986실을 조성한다.

여수 챌린저파크 관광단지는 화양면 51만㎡ 부지에 2308억원을 투자해 1단계로 도로, 전기·하수관로 기반시설과 함께 스카이루지 3개 루트 2724m의 공사를 올해 완공한다. 2단계는 2025년까지 오션포인트 호텔 458실, 컨퍼런스 호텔 180실, 풀빌라 16실 등 숙박시설을 건립한다.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는 의신면 55만9000㎡에 3508억원을 투자해 2019년 1단계로 588실 쏠비치 콘도를 개장했다. 연간 65만6000여 방문객이 찾아와 9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내고 있다.

2025년까지 오션빌리지 166실, 비치콘도 등 총 419실과 함께 전통문화체험관 등을 완공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휴양과 관광을 즐길 것으로 추산, 진도지역 종합 관광거점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현재 전남에선 신안 자은, 고흥 예술랜드 등 5개소에서 3조91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해 호텔·리조트, 풀빌라 등 고급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휴양을 위한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신안 자은 해양관광단지에 533실 리조트 호텔이 오는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고, 오시아노 관광단지에도 지난 2월 지상 5층 120실 규모 리조트호텔을 착공, 한국관광공사가 2023년까지 건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솔비치가 운영되면서 진도지역 방문객이 연간 60만 명 이상 늘었다"며 "전남의 부족한 명품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자원과 어우러진 고급 호텔, 풀빌라 등 투자유치를 지속해 전남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고흥 풍류·보성 영천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 전남도 올 육성사업 마을 선정
## 10억 지원 농업·농촌 성공모델로

전남도가 '2022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대상지로 고흥 두원면 풍류마을과 보성 회천면 영천마을을 선정,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성공모델로 육성한다.

올해 사업 대상지인 고흥 풍류마을과 보성 영천마을에 유기농업 확대와 유기농 융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체험 시설, 마을 공동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생태마을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풍류마을의 경우 유기농 벼 재배단지가 집적화된 35ha가 넘는 풍류단지를 중심으로 공동 육묘장, 광역방제기 등 공동생산시설을 확대한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해 생산 효율화를 꾀한다.

영천마을은 지난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계단식 차밭과 생물 다양성 등으로 보전가치를 인정받았다. 마을 공동 녹차 가공 및 체험·판매 시설, 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영천마을에선 매년 청명차 만들기 행사, 소박한 차 꽃축제 등 마을 축제를 개최한다. 인근에 영천 저수지, 판소리 성지 등 볼거리가 많아 유기농 녹차를 소재로 마을과 체험관광을 연계해 농촌관광 명소로 만들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전남도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며 "삶터·쉼터·일터로서의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마을로 만들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 확산과 농촌 융복합 성공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순천 주암면 궁각마을, 영광 법성면 산하치마을 등 총 34개소를 지정했다.

최근 '제1차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확산과 유기농 생태체험마을을 활용한 주민 소득 증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 '자동배차 시스템'
## 이용객 늘고 만족도 높아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26일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 구축한 관제(수동)배차 시스템을 자동배차(AI)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운영, 이용객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자동배차 시스템은 자동배차 학습을 통해 최적의 배차가 이뤄지는 최신 시스템이다. 특히 이용고객의 의견과 전남도 및 도의회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구축된 수동배차시스템의 단점을 대폭 개선했다. 이 때문에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 지자체가 서둘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이용객 증가, 대기시간 단축, 콜 성공률 제고 등 이용객 관련 지표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1분기 신규 이용자는 48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4명(17%)이 늘었다. 즉시콜 성공 건수도 8만4244건으로 고도화 이전(7만6870건)보다 9.5% 향상됐다.

접수에서 승차까지 배차 소요 시간은 22분으로 기존(28분)보다 6분 이상 단축됐으며, 기타 승차 소요 시간(30분 기준)도 33% 감소하고, 차량 운행 실적도 증가하는 등 관제시스템 고도화 이후 승차 및 배차와 관련한 모든 지표가 향상됐다. 여기에 전남도가 '바우처택시'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2022년 하반기 22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키로 함에 따라 약 200여 대의 바우처택시와 연계하게 됐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효율적 배차 업무 수행과 이용객 확대 방안 마련, 비둘기 모니터링단을 통한 이용 불편 민원 해결, 상담원과 운전원의 친절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청소년미래재단,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재)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최근 남악중앙공원에서 '전남 청소년! 다시 태어나, 봄' 행사와 함께 참가 청소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프로그램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패스트푸드 음식에 익숙해진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여수 YMCA 튼튼먹거리 탐험대 차량을 이용해 진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해남 구성지구 개발 활성화 간담회

전남도가 해남지역 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 상황실에서 해남군, 전담법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성지구 전담법인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 향후계획 등을 밝혔다.

현재 구성지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용지 조성 및 발전단지 구축 ▲솔라시도 선도 주택사업 ▲상하수도 시설 추진계획 등 16개 사업이다. 법인측은 또 전남도 등에 홍보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기업도시 남측 진입도로 연결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해남군과 협력해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해결하기로 했고 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전남도, 여수산단 산업재해 대응 강화 나섰다

## 유관기관·기업과 역량 점검 회의

전남도는 지난 22일 유관기관, 기업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 전에 여수산단 내 LG화학 공장에서 사고 발생 대응 훈련도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 및 여수시 관계자, 최무경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박진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장 등 6개 유관기관을 비롯해 전문가, 산단 기업 10개사 등이 참석했다.

대응 훈련은 전남소방본부와 여수소방서 주관으로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합동방재센터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장비 23대와 인력 127명이 동원됐다. LG화학 가스저장탱크 누출로 인한 대형 화재 발생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했다.

중점 사항은 ▲소방본부관할소방서 연계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 ▲검사·점검 내실화를 통한 대형시설 집중 안전관리 추진 ▲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소방시설 확인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지도 등이다.

점검 회의에선 전남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기업의 산업재해 저감 법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 발표와 함께 입주기업의 사고방지 활동 공유 등이 이어져 민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박교식 숭실대 교수는 여수산업단지의 특성과 산업재해에 관한 주요 안전 법령 등을 소개하고, 여수산단 산업재해 실태를 바탕으로 재해방지대책 수립 필요성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하세요"

## 6월 24일까지 농축협서 판매

전남도가 다가올 태풍 등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신분증, 농지원부, 경작확인서 등 가입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롯해 농지의 지번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으로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7가지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앙·직파를 못했을 경우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으로 더 이상 경작이 어려운 경우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보험료의 80%를 지원했으나,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90%를 지원한다. 유기 인증 농가는 보험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ha당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기준 62만1000원으로, 농업인은 10%인 6만2000원가량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선 11만5140ha 면적을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태풍, 호우 등 피해로 2만1923농가에서 262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무지구(상가매매)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 | |
|---|---|
| 광주 |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
| |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
| |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
| |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
| |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
| |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
| |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
| 전남 |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
| |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
| |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
| |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
| 시외 |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
| |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

010-6670-9800